흰 구름처럼 무애한 '동방의 大시인'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⑦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이규보(李奎報)는 한글 이전의 시대에 태어나 한문으로 시를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문학사에서 널리 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일찍이 서거정(徐居正)은 그를 가리켜 '동방의 시호(詩豪)는 오직 이규보 한 사람 뿐'이라고 말했다. 이규보는 1168년 12월 16일, 호부낭중 이윤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초명(初名)은 인저(仁低)였다. 아홉 살에 이미 글짓기를 잘해서 11살 때 숙부가 이를 자랑하며 낭관(郎官)들에게 시험해 볼 것을 권하자 그에게 '지(紙)' 자를 운(韻)으로 주어 연구(聯句)를 짓게 하였다.

紙路長行毛學士 지로장행모학사
종이 길에는 줄곧 모학사(붓)가 지나가고
盃心常在鞠先生 배심상재국선생
술잔 속에는 늘 국선생(누룩)이 들어 있네.

'지(紙)' 자에 맞춰 붓을 연상한 것인데, 이 대구(對句)로 술잔을 이은 것은 11살의 어린 나이로는 사뭇 엉뚱하기조차 하다. 후에 시와 술, 거문고를 좋아하여 삼혹호(三酷好) 선생이라 불렸던 것도 우연만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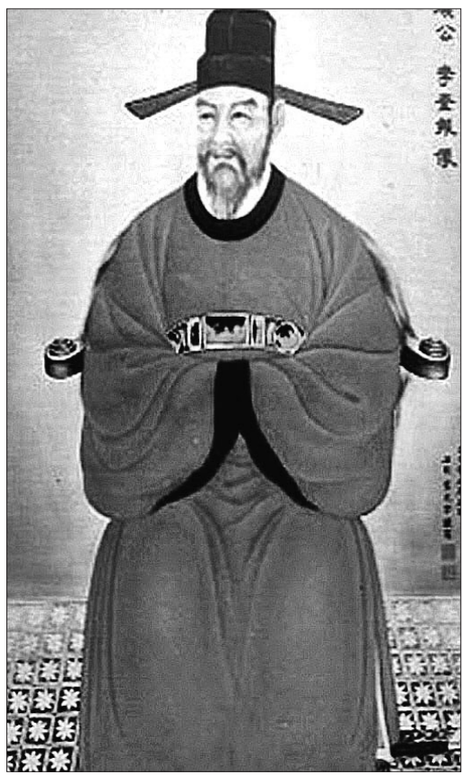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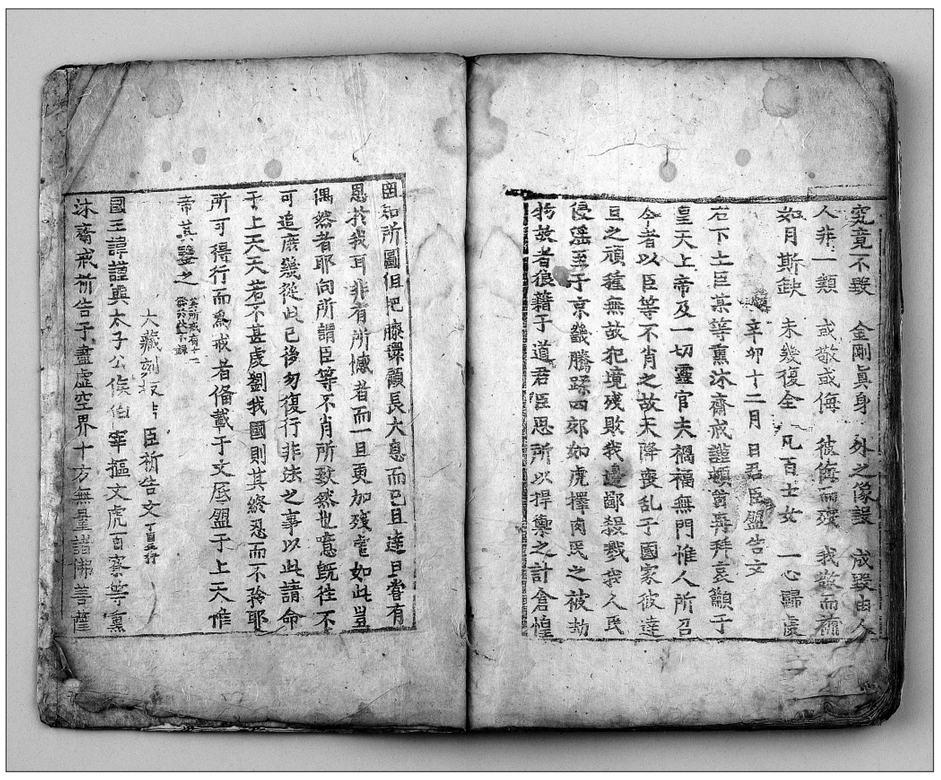
그는 벼슬을 얻기 위해 문학을 이용하였으며 감사의 표시로 또 문학을 앞세웠으니 한림이란 벼슬을 얻은 것은 최충헌의 '모정기(茅亭記)'를 써서였고, 최충헌의 앞에서 '공작(孔雀)'을 써서 사재승(司宰丞)이란 벼슬을 받기도 했다. 이후 계속하여 벼슬이 올라 그의 만년에는 최고의 지위인 상국(相國)에까지 올랐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은 그가 쓴 일생 일대의 역작이다. 이 책에 수록된 '동명왕편(東明王篇)'은 고구려 건국신화로 웅대한 민족서사시다. 우리나라는 성인(聖人)이 창시한 나라임을 알림과 동시에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하였다. 또한 몽고군이 침입해왔을 때는 '진정표(陳情表)'를 써서 몽고의 대군을 물러나게 한 명문장가이기도 하다. 그가 몽고에 보내는 외교문서 등을 전담한 것은 문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며, 그의 문학적 재능은 언제 어디서든 나라를 위한 쓰임을 받았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이문화국(以文華國)'의 뜻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국이상국집〉은 전집 41권인데, 1권부터 18권까지는 시집이고 19권부터는 잡저(雜著), 설(說), 기(記), 서(序) 등의 수필들이 수록돼 있다.

고려조 가전체(假傳體) 문학으로, 술을 의인화하여 정사를 돌보지 않는 군주를 비판하면서 술로 인한 폐해를 고발한 〈국선생전(麴先生傳)〉이라든지, 거북이를 의인화한 〈청강사자현부전(淸江使者玄夫傳)〉은 속된 무리와 아첨배를 꾸짖고 있다.

특히 이규보의 '설'은 모두 예리한 비판과 심오한 철학을 지니고 있어 수필로서 격조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주뢰설(舟賂說)', '경설(鏡說)', '슬견설(蝨犬說)' 등은 좋은 예이다. '주뢰설'은 뇌물과 청탁으로 얼룩진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동방의 시호'라고 불리었던 이규보의 진영(사진 왼쪽)과 그의 평생 역작인 〈동국이상국집(사진 오른쪽)〉.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을 통해 역사 기술부터 시, 수필 등 명문장을 전하고 있다.

한참 가다 보니 옆에서 떠난 배는 나는 듯이 달아나서 벌써 저쪽 기슭에 닿았는데, 내가 탄 배는 오히려 머뭇거리며 시원스럽게 달리지 않고 있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까닭을 물었더니, "저 배에 탄 손님은 사공에게 술을 먹여서 사공이 있는 힘을 다하여 저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조그마한 갈댓잎 같은 배가 가는 데에도 뇌물이 있고 없는 데 따라 빠르고 느리고, 앞서고 뒤서는데, 하물며 벼슬길에서 경쟁하는 마당에 내 손에 돈이 없었으니 오늘날까지 하급 관리 하나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구나." - '주뢰설' 중에서

어느 날 그는 큰 몽둥이로 개를 때려죽이는 것에 경악한 젊은이에게 불꽃 이글거리는 화로를 끼고 앉아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에 비교하며 생명의 차등 없음을 설파한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말·돼지·양·벌레·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중략〉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大鵬)과 동일시하도록 해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道)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슬견설' 중에서

시·술·거문고 좋아했던 시대의 문호
저서 〈동국이상국집〉 필생의 역작
1~18권 時, 19~41권 수필 등 수록
기술한 수필·시 심오한 사유를 담아
연기설 근거한 '空' 사상 작품 곳곳에

달팽이의 뿔과 소의 뿔을 대소(大小)에 상관없이 같이 보고 메추리나 대붕을 동일하게 보며 개의 죽음이나 이의 죽음을 같이 보라는 평등사상과 생명의 존엄성은 불교의 자비사상에 원천한다.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이에 견주어 개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고 깨우친다.

그의 작품 중 불교사상이 비교적 잘 드러난 작품은 '슬견설', '조물주에게 묻는다(問造物)'라는 수필을 꼽을 수 있다. '조물주에게 묻는다'에서 작가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미워한 나머지 인간을 없애기 위해서 호랑이, 곰, 늑대,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냐고 그에게 따져 묻는다. 조물주는 이렇게 답한다.

"그대가 묻는 바, 사람과 물건이 나는 것은 모두 아득한 태초부터 미리 정해진 질서에 따라 자연히 생기는 것이니 하늘이 알지 못하고 조물주도 역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릇 사람이란 제 스스로가 태어날 뿐이지 하늘이 냄이 아니며, 오곡과 뽕나무, 삼들도 제 스스로 난 것이요 하늘이 낸 것이 아니로다. 하물며 어찌 이로운 것과 독한 것을 분별하여 일부러 사람을 이롭게 또는 괴롭게 하겠는가. 오직 도(道)가 있는 사람은 이로움이 온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독이 온다고 해서 구태여 꺼리지 않는 법이다. 그는 공허한 자세로 물건을 대하기 때문에 물건이 또한 그를 해치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 만물은 스스로 나서 스스로 변하는 것이라 그것은 조물주도 하늘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롭다 해롭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일 뿐 우주자연은 무위자연, 즉,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매사를 인간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득실의 공리로 자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는 인간을 위해 모든 자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해충일지라도 인간과 공존할 자격이 있다는 즉 불교의 '만물은 여아동근(汝我同根), 너와 나는 한 뿌리'라는 평등사상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퇴임 후에 그는 "가야금을 타고 두강주를 마시며 백락천(白樂天)의 시를 음미하는 것으로써 속진을 씻어내고 〈능엄경〉을 외워 정업(淨業)을 닦으리라"고 하였다.

수필뿐 아니라 그의 시(詩)에서도 불교와 연관된 작품이 상당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진영은 그의 저서 〈이규보 문학연구(집문당, 1984)〉에서 승려들과의 교유관계로 산출된 시를 비롯하여 불교와 관련된 시가 250여 수나 된다고 밝혔다.

이규보가 접한 불교는 물론 대승불교이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사상은 연기설에 근거한 '공사상(空思想)'이다.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그 정서를 문학적으로 표출하는 시(詩)라고 불교시의 개념을 정의할 때, 불교적 사유의 핵심에는 대승불교의 공사상이 있다. 다음 시에서 그러한 인식론적 사유를 읽을 수 있다.

이끼 덮인 바위틈 맑은 우물에
방금 떠오른 예쁜 달이 또렷이 비쳐 있네.
물 길은 항아리에도 떠 있는 반쪽그림자는
둥근달을 반쪽만 건져 가는 건 아닌지
'저녁나절 산사의 우물에 비친 달을 노래하다
(山夕詠井中月 二首)'

저녁나절, 산사 앞산에 막 달이 떠올랐는데, 마침 반달이었던 모양이다. 달은 절에서 물을 길어다 쓰는 맑은 우물에도 비쳐서 바람을 따라 잔물결 지는 물결 위에 예쁜 자태를 하늘거린다. 시인은 그로부터 달의 원래 모습인 둥근 달을 떠올린다. 달은 모습을 바꾸어 초승달로 떠오르든 반달로 떠오르든 본 모양은 둥근 모양이 아니던가? 그것을 잠시 잊고 눈에 보이는 형상에만 매달려 반쪽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해 보는 것이다.

다음 시에서는 물 긷는 산승을 통해 공적(空的) 사유를 전개한다.

산승이 달빛을 탐내어
물 한 동이에 달을 함께 길었네.
절에 가서야 알게 되겠지
물 쏟아내면 달도 따라서 없어지는 줄을.

시인은 달빛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고 물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거듭 환기시키기 위해 우물물뿐 아니라 물동이에 비친 달까지 동원한 것이지 싶다. 하늘의 달과 우물에 비친 달에서 보이는 달과 우물물과의 관계는 물동이에 길은 물에 비친 달과 물동이 속 물과의 관계에서와 같이 서로를 의지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불교의 연기론(緣起論)에 닿아 있기도 하다.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인 공(空)과 연기(緣起)를 그는 이 시로써 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24세 때 부친상을 당하자 천마산에 우거하며 백운거사(白雲居士)라 자호하고 구름처럼 얽매이지 않고, 오고 가는 데 미련이 없으니 그 또한 통달이 아니겠는가고 걸림 없는 무애의 정신을 표방하며 〈백운거사어록〉 등의 작품을 지었다.

또한 자신의 집을 남헌(南軒)이라 칭하고 〈능가경〉, 〈능엄경〉 등을 읽으며 백낙천(白樂天)의 시를 즐겨 읽고, 시·술·거문고에 의탁하여 육신의 노쇠를 잊고 도의 세계에서 노닐고자 하였다. 1241년 9월 2일, 천도지인 강화에서 하세(下世)하니 나라에서는 문순공(文順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는 붓 하나로 나라의 위기에 보답하고 백운(白雲)처럼 무애(無碍)의 삶을 실천하였으며, 〈동국이상국집〉 외에 〈백운소설〉과 문집에 2천여 수의 시를 남겼다. 과연 서거정의 말대로 '동방의 시호'라고 칭할 만 하다.


김대원 시인, 수필가

봉 (사)범불교조계종 창종 수계 대법회 및 종도 모집 축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등록번호 : 191321-0001925

불기 2560(2016)년 10월 29일 (음, 9월 29일) 토요일

총본산 : 금오산 해인사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577번지 / 055-351-3689)

총무원장 **범성 대명** 010-3193-3689

종도 모집 안내

❶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전법사 등록신청서 –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 1부
- 법당사진(내, 외) – 1부 / 사찰 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 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반 명함판 사진 4매
- 계좌번호 : 농협 351-0902-3064-63 / (사)범불교조계종

❷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전법사,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사)범불교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 관리 감독은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일체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범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범성 대명